

# 광주만의 5·18 벗어나 전국화... '열린 5월광주' 만들어야

9년만에 하나된 5월 광주... 남은 과제는

문대통령 "전국의 5·18 기억...광주가 손 내밀어 달라" 부탁  
우리만 옳다는 마음 내려놓고 배려...개혁과 국민통합 앞장  
민주화운동 만형 역할 하도록 5월 3단체 공법단체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광주시민에게 한가지 부탁을 했다. 기념사 후반부에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린다. 전국의 5·18을 함께 기억해달라.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달라. 광주가 손을 내밀어 달라"는 부분이다.

기념사 가운데 이 부분을 접한 5·18 연구자,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써냈던 교수, 5·18단체장들은 모두 "광주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5·18의 당사자이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5월 정신을 가슴 속에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각오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본산이자 만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로, 대통령이 광주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몽영 5·18기념재단 연구실장은 "5·18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는 것은 온 나라가 5·18 정신을 잊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탁은 광주시민들에

게 본연의 모습을 찾아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제 광주가 '우리만 옳다, 우리가 먼저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고 꺼안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한 강원국(전북대) 교수 역시 "진정성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이 관찰자가 아닌 5·18의 직접 당사자이기에 가능한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연설문을 통해 광주에 부탁한 것은 "개혁과 통합에 있어서 광주정신, 5·18정신을 광주 안에만 가둬선 안 된다. 광주만의 5·18은 안 된다는 의미"라며 "피해자인 광주 시민이 열쇠를 쥐고 있다. 대통령 본인이 5·18왜곡은 막겠으니, 광주가 먼저 통합의 손을 내밀고 반대세력까지 용서를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용서의 대상은 좁게는 당시 신군부세력, 어찌 보면 5·18을 폄하하는 극우세력을 포함한 것으로, 국민 통합도 광주에서 출발해달라는 것 아닐까"라며 "광주가 용서하는데 감히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5·



“주먹밥 드세요”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8기념사에 이런 요청은 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후식 5·18민주유공자 부상자회장은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 5·18진상규명을 위해 스러져간 열사를 비롯한 전국의 5·18 가족을 광주가 끌어안아 달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광주만의 5·18을 벗어나 광주정신의 전국화가 필요하다는데 5·18단체장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광주가 한목소리를 내고 5월 단체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개별 임의단체가 아닌 단일한 공법단체로 연내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 계림동 광주고 앞 첫 발포...조대부고생 부상

“타당 탕 탕” 1980년 5월19일 오후 4시5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총성이 울렸다. 5·18 최초 발포였다. 계엄군 장갑차가 시위 군중에 포위되자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이다. 이 발포로 조대부고생 김영찬 군이 총상을 입었다.



위의 중심세력도 대학생에서 시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두환 타도'를 외쳤다. 정치체 전남도부지사, 이대순 전남도교육감, 정용 31사단장, 윤홍정 계엄분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지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수부대를 시내에서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공수부대 철수 대신 3공수여단 5개 대대를 더 투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고흥 앞바다 기관 고장 표류 소형 어선 해경이 구조



○고흥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소형 어선 기관 고장으로 정체가 발생했다. 해경은 즉각 연안구조선을 출동시켜 50여분에 걸쳐 Y호를 무사히 녹동항으로 예인하는 것으로 구조작업을 마무리한 뒤 "아무리 일이 급하더라도 조업 전 기관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해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기 고장을 일으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선장 광모(60)씨로부터 접수됐다는 것. ○신고 받은 해경은 즉각 연안구조선을 출동시켜 50여분에 걸쳐 Y호를 무사히 녹동항으로 예인하는 것으로 구조작업을 마무리한 뒤 "아무리 일이 급하더라도 조업 전 기관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해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문대통령 언급 5·18 진상규명 외치며 산화한 열사 4인은



전남대생 박관현, 노동자 표정두, 서울대생 조성만, 송실대생 박래전

전남대 총학회장 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는 살아있다  
단식투쟁 끝 옥사 서울서 분신사망 명동성당서 투신 구호 외치고 분신

▲표정두=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했다. 1980년 당시 대동고 학생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정학처분을 받았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호남대를 자퇴한 이후 허남공단에 있던 신흥금속에 입사해 활동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1987년 3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등유를 온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뒤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광주사태 책임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 쓰러져 숨졌다.

▲조성만=1988년 '광주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했다. 5·18민주화운동 8주년을 사

를 앞둔 5월 15일, 재야민주단체 주최로 열린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수배 해제 촉구 결의대회'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때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 4층 옥상에서 "양심수 가둬 놓고 민주화가 언제 일어나!" "공통을 리믹 개최하여 평화 통일 앞당기자!"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자신의 배에 꽂고 5장의 유서를 허공에 뿌리며 투신했다. 즉시 서울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밤 7시에 숨졌다.

▲박래전=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송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했다. 국문학과 학생으로 평소 시인이 꿈이었지만,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으며 '광주학생의 원흉 노태우 처단' 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해 6월4일 송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 파쇼 타도하자. 청년학도회 역사가 부른다"는 구호를 외친 뒤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했다. 이를 뒤인 6일 사망했으며,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친형으로서 노동운동을 꾸민 박래군은 동생의 죽음에 영향을 받아 인권운동가의 길로 들어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달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 ▶인 원 : 선착순 10명
- ▶비 용 : 100,000원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